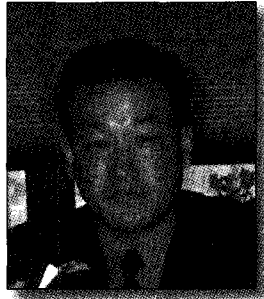


# 한국 양록업 전망 및 당면과제



성 락/분회 사무총장

본고는 지난 9월23일 경기 양주군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양록교육 중 분회 성 락 사무총장이 강의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1. 양록산업 현황

사슴을 사육하여 중요 한약재인 녹용을 생산하는 양록업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 차세대 축산업이다. 사육농가수도 잿소, 양돈에 크게 뒤지지 않는 1만5천여호에 달하며, 사육두수는

25만 마리에 이른다. 녹용과 자록을 통한 국내 생산액이 연간 5백95억원에 달하며, 녹용·녹각 수입량도 연 6백50억원 어치나 된다. 소비시장 기준으로는 5천2백70억원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규모이다.

### ▲ 연도별·국가별 녹용수입 현황

(단위 : kg)

구 분	년도	총 계	뉴질랜드	호 주	캐나다	미 국	러시아	중 국	기 타
건녹용	'98	67,338	47,678	0	1,839	1,604	11,045	5,072	158
	'99	112,280	64,043	607	9,835	4,232	22,750	10,756	57
	'00	64,305	21,930	0	7,322	3,398	26,078	5,312	0
	'01	70,869	44,346	0	0	0	18,914	5,409	카자스탄:150 기 타:2,050
생녹용	'98	22,559	17,911	0	4,649	0	0	0	0
	'99	80,458	35,228	10,543	26,379	8,307	0	0	0
	'00	97,106	29,310	10,704	43,278	13,814	0	0	0
	'01	90,734	76,822	13,302	0	0	610	0	0

국내 양육농가에서 연간 생산되는 녹용은 2001년 기준 총 5만7천6백38kg(생 녹용 환산 19만2천54kg)으로 이는 녹용 도매가격으로 약 4백49억8천만원에 해당한다. 자육생산의 경우 연간 4만2천8백67두가 생산되는데 이는 1백45억5천만원 어치에 해당된다. 따라서 녹용과 자육생산만을 고려한 국내 총 양육생산액은 연간 약 5백95억3천만원에 달한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녹용은 2001년 한해동안 생녹용 9만7백34kg, 건 녹용 7만8백69kg으로 이를 생녹용으로 환산하면 32만4천6백kg이다. 이는 2천1백86만7천불(한화 약 2백93억원) 어치에 해당하며 밀수 및 여행자 휴대녹용 등을 합하면 약 60만kg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녹각 또한 37만6천kg이 수입되어 약 45억원의 외화를 지출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0%만이 녹용을 먹는 것을 감안할 때 잠재시장 규모는 기존 축종들을 훨씬 능가한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한방문화권인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또한 양육산업의 무한한 시장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현재 국내 녹용생산량이 총 소비량의 20%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 2 양육산업의 가능성

### 1) 기존 주요축종 중심 축산의 한계

정확히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

으로 '축산'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소, 돼지, 닭일 것이다. 그만큼 이들 축종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시작에서 현재까지를 지탱하고 있는 소위 '주요 가축'이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 민족이 먼 옛날부터 쌀 다음의 주식으로 이용해 온 것이 이들 가축의 고기와 부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 국민의 식단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 그래서도 안될 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구조가 최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기존 축종 중심의 축산업 한계를 공공연히 거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축산업 내에서의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나름대로 분석하자면 가축사육의 산업화에 따른 인간식량의 가축사료 이용, 성인병을 의

식한 육류위주 식단 개선,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됨으로써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축산업 한계논란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단의 묘안이 없다.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그간 우리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축종들이 안고 있는 이 같은 한계는 우리축산의 장래를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고, 또 선불리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그만큼 소, 돼지, 닭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단백질원이고, 80만 축산농가의 생존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축산문제를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만 풀어나가려 하는, 이로 인해 오히려 한국축산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한번쯤 사려깊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위 주요축종의 변두리에서 어렵사리 성장해온 기타가축 분

야의 가능성을 이제는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반드시 정부차원의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인식되는 기존 축산정책 범위에 기타가축 분야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들어가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2) 양록산업의 차별적 특성

### 가. 사료자급 가능 축종

사슴은 가축화가 덜 이루어진 생리구조를 가진 초식가축으로 주로 나뭇잎과 거친 산야초를 섭취한다. 학계의 보고에서도 사슴은 소, 면양 등과는 달리 수엽류에 대한 채식기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엽류가 수분함량과 조섬유 함량이 목초나 야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 탄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 함량도 12~18% 수준으로 사슴의 소화생리 구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곡류사료만이 필요하며 국토의 67%에 달하는 산지활용으로 얼마든지 사육이 가능하다.

### ▲ 사슴의 조사료 채식기호도(%)

구 분	꽃 사슴	레드 디어	엘 크
관 목 류	60	60	10
광엽초본류	30	30	40
야 초 류	10	10	50

▲ 국내 양육농가에서 이용하는 조사료의 종류

구 분	관 목 류	알 팔 파	사료작물	벗 짚	기 타
급여비율(%)	66.51	11.43	9.44	0.89	11.76

나. 양육산물의 용도  
 사슴에서 얻어지는 녹용은 의약품 원료 및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기존 육류중심 축산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며, 사슴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육류로서 현대인들의 선호도와 일치한다.

▲ 녹육과 타 가축육의 성분 비교

구 분	지방(%)	단백질(%)	칼로리(%)	콜레스테롤(mg/100g)
사슴고기	3.3	24.7	126	66
쇠고기	6.5	22.0	313	67
돼지고기	7.4	24.0	323	85
닭고기	5.6	27.0	218	40

다. 환경친화적 축산 가능

기존 축종들이 폐수발생에 따른 각종 규제강화로 위축되어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환경오염 문제도 사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도 사슴의 분뇨발생량은 1일 2.5kg/두(분 0.5kg, 뇨 2kg)으로 타 축종에 비해 매우 적으며, 분(糞)은 수분이 60% 이하인 입자고형체(粒子固形體)

▲ 축종별 신고대상 시설 기준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를 제외한다)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로서 매일 수거하여 농지에 퇴비로 활용하고, 노(尿)는 목장의 토양에 흡수되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우려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 돼지, 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사슴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축산으로 정착되려면 지나치게 밀집된 공간에서의 사육, 배합사료 위주 사육 등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슴사육이 대규모화 되어감에 따라 관련법률에서도 사슴사육 시설에 대한 폐수처리 기준을 점차 강화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 3) 양육산물 시장 국내보유

우리나라는 세계 녹용 소비량의 80%를 소비하는 최대 녹용 소비국이다. 이같이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양육업의 최대 이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녹용은 옛 한방문헌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다양한 자연산 사료섭취로써 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생산된 녹용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인구 13억을 보유한 인접국 중국의 경제부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도 사슴을 사육하고는 있지만 50만~1백만두 정도만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최대 녹용시장으로 부상

하게 될 경우 가장 용이한 수출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3. 한국 양육업의 구조적 문제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육업은 오랜 침체와 불황을 겪고 있다. 특히 사슴가격의 하락과 신규농가 참여 부진, 기존 농가의 증식의지 약화, 생산물 판매 저조 등이 두드러지고 있어 자칫 양육산업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양육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 1) 주 소비시장에서의 외면

알려진 바와 같이 전세계 녹용생산량의 80%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정작 국산녹용은 주 소비시장인 한약시장

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산과의 큰 가격차, 그리고 한의사들이 국산녹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국산녹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 및 한약규격품화 등을 통한 한의약계 판매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결국 국산녹용은 농장주의 능력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을 통한 판매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유통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 농가 영세성 및 부업형태 답습

국내 사슴농가의 호당 사육두수는 평균 17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다. 또 사슴만을 전업으로 사육하지 않고 다른 가축 또는 농작물, 과수재배 등을 하면서 부업형태로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형태로는 체계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 제고 및 판매촉진 활동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일부 전업형 농가의 경영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두사육으로 생산비 절감에 성공한 전업농가의 경우 생산물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소비확대를 꾀할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로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 등이다.

## 3) 축산업으로의 위상정립 미흡

녹용은 한약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생산은 농민의 몫이고, 특히 가축을 사육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축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사육은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최근까지도 인식되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우리 축산업의 취약성이 그 동안 정부지원 등으로 보충되어 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양록발전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단백 육류 공급원이면서도 이를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점도 양록이 축산업내에서 비중을 확보하지 못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들어 사슴요리 개발 및 전문점 등장, 축산단체간 교류 참여 및 양록단체의 대정부 활동 강화 등으로 나름대로 위상을 인정받아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민간양록**